

# KIA, 선발 운영철 생략... 이범호 감독 특단의 전략

2일 삼성전 선발 김도현 결정 주 6경기 5선발...2회 등판 위해 김도현·네일 삼성전 강한 모습 선발 따른 불펜 기용 수 싸움도



지난 1일 예정됐던 삼성과의 경기가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취소된 가운데 KIA 타이거즈가 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 선발투수로 운영철이 아닌 김도현을 내세웠다.

특히 이범호 KIA 감독의 불펜 운용에 대한 수 싸움도 치열해지면서 그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이범호 KIA 감독은 2일 삼성과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김도현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KIA가 4월 상대하는 삼성과 LG전·롯데·SSG·KT·두산전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선발 투수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KBO리그는 우천취소 등 특별한 이유로 경기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주 6회의 경기가 열린다. 대체적으로 5명의 선발투수를 로테이션으로 가동하며 화요일 경기에 나선 선발투수가 일요일 경기에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KIA는 당초 1일 경기에 운영철을 선발로 내세우려 했다. 하지만 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로 이날 모든 경기가 취소돼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지난 1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투수 김도현(왼쪽부터)과 운영철.

민현기 기자 KIA타이거즈 제공

2일 경기에 운영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운영철을 생략하고 김도현을 선발로 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선발투수를 한 주에 2경기에 투입시키고 상대팀에 강한 투수를 마운드에 올려 승리 확률을 높이겠다는 게 이범호 감독의 구상 때문이다.

2일과 3일 삼성과의 2경기에서 김도현과 제임스 네일을 내세워 승수를 챙기고 4일부터 6일까지 LG전에서 양현중-아담

올러-운영철로 워닝시리즈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뒤이어 롯데, SSG와의 6연전을 진행하는 4월 둘째 주에 KIA의 가장 강한 1선발 투수인 네일에게 두 경기를 책임지게 하고, 셋째 주 KT, 두산과의 6연전에서 2선발 투수인 양현중이 두 경기를 뛰면서 리그 초반 승점을 챙기며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김도현이 2일 삼성전에 선발로 기용된 이유는 현재 컨디션이 좋은 데다 지난해 삼성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지난 시즌 막판이었던 9월 24일 삼성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또 지난달 27일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비자책)으로 퀄리티스타트 호투를 펼쳤고, 같은달 초 시범경기 2경기서 7.1이닝 6피안타 4탈삼진 2실점(1자책) 평균자책점 1.23를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네일도 지난해 10월 21일 삼성과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5이닝 1실점 4피안타 2사사구 6삼진이라

는 압도적인 위력투를 보였고, 같은달 26일 4차전에서 5.2이닝 2실점 6피안타(1홈런) 1사사구 7삼진으로 승리 투수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불펜 운용이다. 최근 KIA는 불펜 난조로 4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불펜 투수를 교체해준다 보니 체력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이범호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범호 감독은 "등록된 투수 14명 중 선발 투수 빼고 8-9명 중 어떤 날 연투를 하게 돼 2-3명 빠지면 남은 5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만약 선발 투수가 그날따라 부진해서 4회에 투구수가 99개를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대방의 중심 타선이 결렬 가능성이 높은 5회를 앞두고 그나마 컨디션이 좋은 불펜을 그 타선에 맞춰서 내야 하고, 그 상황에 타자들을 믿고 후반에 승부가 갈릴 것 같으면 또 다른 선수를 쓰기도 하는 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선발 투수가 6회에 90구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감독으로서 투수를 바꿔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 투수한테 10여개를 더 던지게 해야 4선발과 5선발 때 쓸 불펜을 아낄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승률이 높아지는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즌 초반 김도영과 박찬호의 부상으로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지만 최근 마지막 경기에서 연패를 끊었고 앞으로 가장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운영하겠다"고 힘써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전 마지막 점검 나선다

### 내일 장성서 2차 대표자 회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장성군과 함께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4일 장성군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 등 약 90명이 참석하여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성군 체전 TF팀이 개·폐회식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과 종합 안전 대책을 안내한다. 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종 참가 신청을 바탕으로 경기 대진 추첨을 진행하며 주요 공지 사항을 전달한다.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장성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 총 21개 종목에 1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정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성에서 처음 열리는 장애인 체전에서 선수단과 가족들이 감동과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장성군의 따뜻한 환영과 열정적인 준비가 이번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 악! 김선빈도 쓰러졌다... KIA, 또 부상 악재

### 왼쪽 종아리 근육 미세손상 유격수 박찬호는 5일 복귀

KIA타이거즈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야수 김도영과 박찬호에 이어 김선빈(사진)마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다. 다행히도 김선빈이 재활에 들어가는 시점에 박찬호가 복귀할 예정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김선빈 선수의 몸 상태에 손상이 있는 것 같아서 박찬호 선수가 합류 예정인 5일부터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선빈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대타자로 나와 한 타석만 소화하고 물러났다. 이후 31일 구단 지정 병원인 선한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종아리 내측 근육 미세손상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로 최근 경기처럼 대타 출전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경기출전은 어렵다는 게 이범호 감독의 설

명이다. 타석에 설 순 있지만 수비나 주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야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KIA는 결국 지난달 25일 무릎 부상을 입고 회복을 위해 경기에서 제외됐던 박찬호가 돌아오는 5일 김선빈과 자리를 맞바꿀 계획이다.

박찬호도 퓨처스(2군) 리그에 출전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함평에서 열린 KT 위즈와 퓨처스(2군) 리그 경기에서 1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박찬호는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민현기 기자



## 광산구장애인체육회, 특화 생활체육사업 6종목 8개소 운영

광주시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올해 광산구형 특화 장애인생활체육사업으로 6개 종목 8개소를 운영한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1일 하남혁신지원센터 3층 배움터에서 제2차 생활체육위원회를 열고 2025년 광산구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광산구형 특화 장애인생활체육사업(Healthy광산 Happy광산)으로 점핑체조, 풋살, 볼링, 아둥수중, 배드민턴, 건강체조 등 6개 종목 8개소를 확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한 장애인생활체육사업에

실사업 14개소(장애유형별 6개소, 생애주기별 7개소, 특화 1개소) 2000만원, 대회형 개최 1개소 300만원이 선정된 데 따라 이뤄진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광산구 내 특수학교 및 학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받아 생활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7개 기관 20종목 160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또 올해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5년 광산구 장애인 동호인 클럽 지원사업'을 공모해 파크골프 2개소, 스폴런 1개소 클럽을 선정했다.

최동한 기자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안전 'C등급'... "관리 인력 총 동원중"

### 지난해 광주시 주체 안전점검서

최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도 지난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시설물 안전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장 10년을 맞은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 광주시가 주체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급 중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으나 간단한 보수·보강만을 필요로 한다.

다만, 최근 사고가 발생했던 창원NC파크의 경우 B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C등급이 결코 안전한 단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KIA 관계자는 "본사와 광주공장, 챔피언스 필드 시설관리 인력을 모두 동원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와

LG와의 경기 도중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추락해 매점 인근에 줄을 서 있던 관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여동생인 B씨도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의 경기를 모두 취소했으며 창원NC파크에서 3일까지 예정된 경기는 연기하고 그 외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는 2일부터 재개된다.

민현기 기자